

Vol.
50



공간 그리고
2023 결

자연은

그 스스로 주체자로서

인간과 함께 하는 벗(友)이기 때문입니다.



점

처음에는 하늘이 땅과 아주 가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옛날 사람들은 경작하거나 요리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배가 고플 땀 손을 뻗어 하늘 한 조각을 따서 먹으면 되었으니까요. 그 하늘은 무척 맛있었나 봅니다.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늘을 따고 남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 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점점 화가 난 하늘은 마침내 멀리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이 설화는 나이지리아 비니 부족에게 전해오는 옛날이야기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하늘은 자연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남용이 초래할 미래를 미리 귀뜸해 주는 것이지요. 인간들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자연과 인간의 소중한 관계를 흐트릴 수 있다고요.

인간에게 자연, 자연에게 인간은 얼마나 곡진한 사이였던가요.

그리스로마 신화의 신들을 떠올려보면 대부분 자연의 상징체들입니다. 아폴론(태양), 포세이돈(바다), 아르테미스(달), 데메테르(대지)처럼요. 인간에게 자연은 절대자, 신과 다름없었습니다.

‘Thanksgiving Day’라는 표현처럼 인간은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자연에 제사를 올리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농경시대 인간이 자연에 대해 갖는 감정과 태도는 그야말로 경외심과 감사였지요.

예술에서도 자연은 그 시작이었습니다. 구석기시대 라스코 동굴에 그려진 말, 사슴, 들소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자연을 모방하여 그리는 것으로 예술을 시작하였습니다. 나아가 새가 날아와 쪼아먹을 정도로 생생하게 그린 제육시스의 포도 그림처럼, 자연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예술의 전범(典範)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후로도 18세기까지 숲, 바람, 강, 바다, 들, 꽃, 과일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은 예술의 주된 주제였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이런 달콤한 관계는 19세기 본격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자연의 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계 문명 발전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생물학, 화학, 공학 등의 과학 발전은 자연을 인간의 지식으로 규명해 낼 수 있는 실험 및 연구 대상으로 위치시켰습니다. 놀랍게도 인간은 산, 바다, 땅과 같은 물리적 자연에 대한 개발과 통제뿐 아니라 철도나 비행기로 시간을 압축하고,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가상의 공간을 구성하는 데 이르렀지요. 이제 숭모하던 자연에 대해, 인간은 온전한 존재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재료를 추출해내는 생산지로, 과도한 생산으로 남은 물품을 내다 버리는 쓰레기장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쌓아 올린 무거운 탄소발자국은 지구를 둘러싼 대기 질서를 교란시켜 온난화를 초래하였고, 바다에 묻은 무수한 쓰레기는 태평양에 두 개의 괴기스러운 쓰레기섬(Great Pacific garbage patch)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기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생명체란 생명체는 모조리 순식간에 파괴하는 핵 실험으로 지구를 무참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격합니다. 자연이 아무리 크고 위대한들 견뎌 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지구에서는 여러 심상찮은 조짐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북극과 남극의 해빙과 그로 인한 해수면 상승입니다. 2023년 3월 발표된 국립해양조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해수면 높이가 2050년까지 25cm, 2100년에는 82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안리 백사장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의 상승치라고 합니다.

비니 부족의 하늘이 떠난 이유는 하늘이 고갈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의 일방적인 태도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사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왜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된 걸까’라고요.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은 2014년 코펜하겐, 2015년 파리, 2018년 런던에서 거대한 얼음덩어리를 시계 모양으로 설치한 <Ice watch>를 전시했습니다. 그 얼음 오브제는 북극에서 가져온 빙하 조각이었습니다. 관람자들은 북극의 빙하가 자신들의 삶터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시간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어떤 이들은 빙하를 꺼안고, 또 어떤 이들은 빙하에 뺨을 대거나, 손을 올린 채 결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찍이 1962년, 레이첼 카슨은 자신의 저서 『침묵의 봄』을 통하여 지구 생명의 역사는 살아있는 생명들과 그 환경과의 상호협력의 역사라고 하면서 인간이 경작물을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 독성 화학 살충제를 살포해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새들이 지저귀지 않는 침묵의 봄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아』의 저자 제임스 러브록은 새들이 사라지는 것은 농약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새들이 살 수 있는 장소를 빼앗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모두 자연에 대한 비성찰과 이기적인 태도에 대한 질책입니다.

자연은 인공 생산물을 위한 재료나 도구가 아닐 뿐 아니라 보호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무엇을 보호한다는 것은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입장이고 인간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연보호라는 용어보다는 기후정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것은 자연을 그 본연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며 이러한 일을 해내는 노력을 기후행동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도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부산문화재단 주최로 부산, 울산, 경남의 해변-일광해수욕장과 이기대(부산), 간절곶(울산), 와현해수욕장(경남)에서 비치코밍을 가진 후 주운 쓰레기를 활용하여 <투게더 아트전>(2022)을 열었습니다. 비치코밍 프로젝트는 2023년 11월에도 진행됩니다. 실험실 C는 다대포 물운대에서 <1제곱미터의 우주 II>(2022)를 전시했으며, 오뎀한 셰프는 <미래의 식탁: 기대어 깃든 프로젝트>(2022)를 요리해 내었구요. 에코 액션포레스트는 좌천초등학교에서 기후를 주제로 한 <소행성 42PX+5H>(2021)라는 공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펼쳤습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 자연을 자연의 위치로 되돌려주는 행동은 예술을 통해 환경미학, 혹은 환경윤리학적 차원에서 다시 구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관계의 복원입니다. 지구별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저마다의 지저귀음 가지고 살아가는 스스로(自) 그러한(然) 섭리를 존중하고, 인간 역시 그 자연의 일부로서 깃들어 다른 생명을 보듬을 것. 『공감 그리고』 가을호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인간의 자연 지배에 대해 BUT이라는 제동을 겁니다. 자연은 그 스스로 주체자로서 인간과 함께 하는 벗(友)이기 때문입니다.

* 나이지리아 옛날이야기의 출처: 원작 나이지리아 옛이야기, 글 메어리-조안 거슨, 그림 칼라 골롬비, 엄혜숙 역, 『하늘은 왜 멀어졌을까?』 한국차일드아카데미, 2002.

관계의 전환

글: 박소윤

부산문화재단 기획경영실장. 부산대학교 겸임교수.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에서 「지속가능발전과 도시문화정책: 부산 문화현장을 통해 본 문화다양성의 지역회복 함의」라는 국제학 박사논문을 썼고 또 한 편의 예술학 박사논문을 쓰고 있다. 『음악용어의 탈식민성: '번역되기'에서 '번역하기'로』: 금수현의 『표준음악사전』을 중심으로, 『신무용과 부산』들의 논문이 있다. 책임편집 및 공동집필한 책 『우리-문화예술교육』(2020), 『지역-문화예술교육』(2020), 『청문정답-부산청년 문화백서』(2021) 등을 내었다.

CONTENTS

엽

관계의 전환 박소윤	01
---------------	----

시선

‘우리’는 땅을 대신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강을 대신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서영란	06
--	----

손뼉어풀어힌갯바위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	10
------------------------------	----

시절과 공간

안일웅의 그때 그 시절 자신의 악성(樂性)을 사랑할 줄 아는 음악인 안일웅	14
--	----

사진작가 여승진의 히든플레이스 페히에서, 다시 오성은	18
----------------------------------	----

작가 공책

나누는 밥 박주호	24
--------------	----

사람과 사람들

따뜻한 연출가 허석민을 만나다

이기호 ————— 28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될 거야

박보은 ————— 34

지금

도서전을 해변에서 연다고?

정진리 ————— 40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권영훈 ————— 44

보통의 장벽

강주형 ————— 48

놀러 와요, 악기의 숲

구선미 ————— 52

아시아 평화와 새로운 인권 연대를 위한

2023 아시아생명평화문예축전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김정) ————— 56

함께, 가을

————— 58

너머

초단편 소설 외계인들

임성용 ————— 60

‘우리’는 땅을 대신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강을 대신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물다양성 운동 퍼포먼스의 ‘공동’과 ‘우리’

글. 서영란

안무가. 근래에 생태와 퍼포먼스에 관해 글을 쓰고, 움직이며, 기후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주변 동료들과 주고받는 자양분 덕분에 외국 땅에서 얽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다. 기후와 돌봄의 위기 속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기를 연습한다.

2021년 2월 코펜하겐 시의회는 코펜하겐 시와 건설회사 뷰오하운 *Byoghavn*이 시내 야생 지대인 아마 펠레드 *Amager Fælled*를 주택지로 개발하는 사안에 동의했다. 코펜하겐 시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야생 지대이자 다양한 동식물과 보호종의 서식처이기에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밝혔다. 아마 펠레드의 ‘펠레드 *Fælled*’는 덴마크어로 ‘공동’의 지대를 뜻한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던 ‘공동’의 땅을 개인의 주택지로 ‘사유화’하는 데 시민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공동’이란 그 땅에 살고 있는 동식물, 유·무기물들과 인간의 ‘공동’ 지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덴마크 국민 70%가 반대하는 이 건설을 코펜하겐 시와 건설회사가 강행하자 ‘공동’을 지키기 위해 여러 시민 단체 및 환경 운동가들이 힘을 모았다. 시민 단체인 ‘아마 펠레드의 친구들 *Amager Fælled's Venner*’, ‘코펜하겐 생물종의 대사 *Arternes Ambassade København*’, 환경보호 단체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기후운동 퍼포먼스 콜렉티브인 ‘비커밍스피시스 *Becoming Species*’가 반대 시위 및 퍼포먼스를 벌였다. 아마 펠레드에 사는 멸종위기의 물도마뱀으로 변장한 운동가들이 환경부 앞을 뒤덮었고, 시청 안에 아마 펠레드의 야생 토끼와 난초, 버섯, 도마뱀, 이끼, 메뚜기 등의 가면을 쓴 이들이 난입했다. 아마 펠레드의 ‘공동’을 지키기 위한 일련의 퍼포먼스 중에서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아마 펠레드 생물들의 행진’이다.

우리는 건설로 인해 살 곳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아마 펠레드의 동식물이 시청 앞까지 행진하는 것을 퍼포먼스로 기획했다.

작가 란디 *Randy Kjær*에게 가면을 만드는 법을 배워서 ‘생물 가면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은 어른들과 어린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고, 참여한 시민들은 아마 펠레드에 사는 생물 중에 자신에게 친밀하게 여겨지는 생물을 하나 골라 가면을 만들었다.

우리는 가면을 만들면서 서로 ‘왜 그 생물을 선택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생물의 생태적 습성 및 처한 상황을 살펴보며 생물과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았다.

2021년 5월 16일 아마 펠레드에 비커밍스피시스, 아마 펠레드의 친구들, 생물종의 대사 그룹 및 환경 운동가들이 모였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생물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며 시청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 도중, 길 곳곳에서 생물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 시민들이 합류했다. 가면 만들기 워크숍에 참여했던 시민뿐만 아니라 행진이 있다는 것을 들은 각종 문화 단체들이 자기네 단체복을 입고 대열에 합류했다. 집에서 동물 인형을 가지고 나온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도 우리의 걸음에 합류했다. 우리의 노래는 작은 합창에서, 행렬을 따라 이어지는 돌림노래로 그리고 점점 커다란 메아리로 변해갔다. 시청 앞에 도착했을 때, 시청 광장이 생물들의 얼굴로 가득 메워졌다.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시민들의 참여에 많은 이들이 몽클함을 느꼈다. 나는 이 퍼포먼스에서 어떤 근사한 몸짓을 하거나, 세밀한 아이디어로 퍼포먼스에 기여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큰 만족감을 느꼈다.

생물 가면을 쓴 시민 생물들의 행진이 만들어낸 풍족함의 느낌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생물의 가면을 쓰고 그 생물처럼 움직이는 행위는 오락적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권의 민속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물로의 변신과 재현 행위는 더 새로울 것도 없고, 아이들의 놀이처럼 느껴질 수 있다. 특히 현대공연예술에서 어떤 대상을 '재현'하는 행위는 재현할 '대상'의 특성이 고정되어 있고 그것을 완벽히 재현한다는 본질주의적 태도 때문에 허물어야 할 미학적 관습이기도 했다. 하지만 집단적 퍼레이드에서 생물종의 가면 쓰기란 그 생물의 어떤 모습을 '진짜'로 고정해 놓고 완벽히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연스레 있는 어떤 생물에 이끌리는 마음, 생물을 귀여워하거나 멋있게 보고, 특성을 따라 하고 싶은 욕망에서부터 시작했다.

또 욕망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정치적인 공공장소에서 '생물 가면 쓰기'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었다. 다양한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모인 집단의 퍼포먼스로 확장되면서, 작가와 관객의 경계가 무너진 무리 속에서 생겨난 새로운 연결과 만남에 풍족함을 느끼는 집단적 미학이 만들어졌다.

누군가는 인간 너머(혹은 인간 속의) 생물을 위한 운동 퍼포먼스를 보고 브루노 라투르의 '사물들의 의회' 같은 정치적 구상을 기후 운동가나 예술가들이 낭만적인 존재론적 형태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한데 정치 체계를 재구축하는 시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존재들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상상하며 행위하는 것은 과연 서로 관계가 없는 일일까? 퍼포먼스를 함께 준비했던 '아마 펠레드의 친구'와 '코펜하겐 생물종의 대사'는 인간이면서 자칭 생물의 친구 혹은 대사라고

말하는 자연의 의인화가 이름 속에 담겨있다. '생물종의 대사'는 자신과 가깝게 여겨지는 생물을 친족처럼 느끼고 공부하고 돌봐온 이들이며, 생물들의 생태적 표현이 존속할 수 있도록 대변한다. 그들은 현재 정치권이 없지만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를 실험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회'에 생물종의 대사들이 일원이 되어 생물 중심적 정치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어른들이 동식물의 가면을 쓰고, 아이들이 동물 인형을 들고 시청으로 행진한 이 우스꽝스러운 쇼는 실상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다. 건설회사의 배상금을 온전히 시민들의 기부로 단 며칠 만에 모금한 쾌거를 세웠고, 현재 건설은 중단된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정말 땅을 대신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강을 대신해 그들의 권리를 말할 수 있을까? 이 지구의 거대한 행성적 시간 속에서 인간은 찰나의 미물이고, 어쩌면 생물의 목소리를 내는 행위는 인간이 (생물과 함께) 지구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외침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외침에는 생물이 사라지면 인간도 사라질 것이라는 우리의 역인 관계성도 담겨있다.

코펜하겐 정치학과의 생기적 정치학 *Vital Politic* 연구그룹과 예술가 및 기후 운동가들이 함께 인간과 생물을 포함한 선언과 헌법 만들기를 시도한 적이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법은 그것이 쓰이고 발표된 후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포용적인 '우리'를 상상하며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 영감을 받아 '우리는 ~한 사회를 원한다'라고 쓰는데, '우리'에 생물이 들어가는 것인지, 생물을 대신해서 말하는 '인간'만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여전히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다 나는 문득 한국말에서는 모든 것에 곧잘 '우리'를 붙였던 것이 생각났다.

'우리 가족은~' 하고 말하면 나만의 가족이 아닌 더 많은 이들과 가족이 된 것 같고, 듣는 상대방도 포함시켜 가족이라고 말하는 느낌이다. 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 '공동'의 것이라는 게 우리말을 쓰는 세계관 속에 스며있다. 따라서 인간과 생물의 연결성을 감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 강, 우리 산, 우리 들, 우리 부엉이, 우리 꿈을 소리내어 내뱉어 본다. 안과 밖이 투과되는 세포막처럼 열린 경계를 포함한 '우리'를 연습한다.

손역어풀엮힌갯바위



〈손역어풀엮힌갯바위〉 부분, 2022, 혼합매체, 영상

글. 라이스 브루잉 시스템즈 클럽

라이스 브루잉 시스템즈 클럽은 '사회적 발효'라는 개념을 다양한 형식과 협업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막걸리를 만들며 글을 쓰고, 농사를 지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영상과 설치를 만들고, 바다 마을을 여행하며 땅과 바다에 닿아 있는 작업을 고민한다.

사진.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제공, © 김상태

바람을 맞으며 영도 절영로 아래 짙은 회색 갯바위에 올라섰다. 한반도의 동쪽과 남쪽 해안선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 갯바위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중간 지대에 형성되는, 주로 암석으로 이루어진 해안 지형이다. 우리는 주로 영도 지역의 갯바위를 오르고 미끄러져 내려가기도 하면서 물이 고인 곳을 찾아 다녔다. 특히 바위틈이나 바위가 파인 곳에 밀물과 썰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조수웅덩이에서 자라나는 여러 해초와 해수를 채집했는데, 특정한 목적이 있다기보다 그곳에 사는 여러 생물을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다. 해양생물학자 이동주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 채집을 마친 후, 박사님이 운영하는 자연과학서점 '동주책방'으로 가 갯바위에서 가져온 해수 한 방울을 살레에 놓고 현미경을 통해 약 400배가량 확대해 들여다보았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미생물과 미세조류는 해수 한 방울로 이루어진 세계 속 가득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동글납작한 형태에서 기다란 실 모양의 미생물, 영화 <에일리언>에 나오는 괴물의 모티브가 된 요각류 등 다양했다. '이 추운 날 갯바위에 무엇이 살고 있겠어'라는 생각은 인간 중심적 시각에 의존한 사고였다.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는 지식과 실제로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대면한 순간의 감동 사이 간극은 생각보다 꽤 컸다. 그 후 갯바위에 갈 때마다 조수웅덩이를 찬찬히 바라보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속 함께 살고 있는 생물, 그들이 움직이는 형태, 어딘가에 부착되어 자라나는 방식 등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며 종종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갯바위, 특히 조수웅덩이는 다양한 종의 작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터전이 되지만, 끊임없는 파도가 칠 때나 바람이 불 때, 한여름 해수의 온도가 40도에 육박할 때나 한겨울 기온이 급감할 때에는 거칠고 각박한 환경으로 변한다. 반면 이 갯바위는 사람에게도 삶의 터전이 되곤 한다. 예를 들어, 부산의 해녀들은 매해 겨울(음력 9~10월 즈음) 미역 포자가 잘 붙도록 갯바위를 잘 닦는 ‘바위닦기’를 한다. ‘ㄱ’ 모양으로 꺾인 뾰족한 호미를 잡은 손으로 일일이 바위가 하얗질 때까지 닦아내어 떠다니는 미역 포자들이 잘 붙도록 만드는 작업이다. 기장 신암어촌계 천대원 계장님은 우리가 담구멍이 막히면 탈나듯이 돌도 숨을 쉬고, 돌도 숨을 못 쉬면 죽은 돌이 된다 하셨다. 마찬가지로 해녀들은 물 위로 올라갈 때 오리발로 돌을 탁탁 치곤 하는데, 거기 붙어 있던 해조류를 날려 보내어 돌에 숨구멍을 열어놓기 위함이다. 계장님의 어머님이시기도 한 김정자 해녀님 말씀에 따르면, 살아있는 돌은 숨을 쉬기 때문에 돌을 닦는 게 돌을 살리는 것과 같다고 한다. 또한 라이스 브루잉 시스템즈 클럽이 영도에서 만난 동삼동 어촌계 이정옥 해녀님은 사람이 모진 풍파를 겪으면 더 단단해지듯이 조류가 센 곳에 자라나는 미역이 더 쫄깃하고 맛있다고 하셨다. 일생 동안 물질하신 이정옥 해녀님은 바다 위보다 바다 밑을 더 잘 아신다. 곰피, 미역, 우뭇가사리, 모자반이 많이 있을수록 먹이 사슬이 많이 생겨 동식물이 계속 자라나는데, 요즈음의 부산 바다는 이런 해초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깊은 바닷속은 더욱 황폐해져 가고 있다고 한다.

갯바위에는 살아 있는 생명과 더불어 바위 곳곳에 녹아내린 흰 촛농도 자리 잡고 있다. 누군가가 바람이 덜 부는 자리를 찾아 간절히 소원을 비는 동안, 초는 녹아내려 틈새 사이로 스며든 후 갯바위의 일부가 된다. 기장에서 만난 박수진 무녀님은 해녀들은 살기 위해서 (물질을) 하고, 무녀는 살려주려고 (굿을) 한다고 말씀하셨다.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의 2022년작 <손역어풀업헛갯바위>는 갯바위를 터전으로 삼는 미생물과 미세조류에서부터 시작하여, 바위에 붙어 자라나는 부산의 해조류와 이를 직접 손으로 채집하는 해녀 그리고 두 손 모아 이들의 지속과 안녕을 기원하는 무녀의 이야기를 한데 엮는다. 각 개체가 고유한 생존 방식과 환경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까닭에 어느 한쪽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이 관계와 생태는 크게 타격을 입게 된다. 인간과 비인간, 이들의 삶의 터전의 몸집은 하나같이 작다. 이 때문에 종종 거대한 산업현장 뒤 가려져 위태롭게 존재하거나 멸종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얽혀있는 이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망을 망가뜨리는 것은 꽤나 쉬운 일이다. 또한 인간 중심의 편익과 사고가 팽배한 지금, 망가진 관계망은 산업화와 대량 생산, 무분별한 소비의 과정을 거치며 소멸해 간다.

삶을 위해 물질하는 해녀는 절대 일정 크기 이하의 전복은 잡지 않고 살려둔다. 무녀는 인간의 안전과 보이지 않는 존재의 생존을 위해 기도를 올린다. 생물학자는 우리의 몸과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미생물의 존재에 관한 지식을 한 겹씩 드러낸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공생의 감각을 인지하고, 연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나간다. 이 실천은 개인적 판단과 행동 등의 작은 단위에서부터 조직적이고 정책적인 규모까지 다양할 수 있지만, 변화를 만드는 힘은 깊이 공감하며 감각하는 등의 보다 감정적인 층위에서 오지 않을까. 미술을 일종의 도구라 할 수 있다면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은 이 도구를 이용해 공생의 감각을 시각화하고 경험화하는 실험을 한다. 실험은 당연히 불확실성과 실패를 전제한다. 성공이 목적이 아닐 때, 비로소 가치 판단을 유보하며 불확실성에 기반한 일련의 실험이 일어나기에. 그리고 그것이 미술이라는 도구 안에서 가능하기에.

안일웅의 그때 그 시절

자신의 악성(樂性)을 사랑할 줄 아는 음악인



글·사진. 안일웅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와 세종대학교 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스승, 나운영 교수), 오스트리아 Mozarteum에서 Gerhard Wimberger 교수에게 작곡을 사사했다. 27회의 안일웅 작곡발표회를 가졌으며, 저서 『작곡법』, 『악식론』, 『음악형식론』이 있다. '88 서울올림픽 부산스타디움 개폐회식 전 창작음악을 작곡하였으며, 독일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TFNM)에서 안일웅 집중조명이 2000, 2006, 2012, 2013, 2015년에 열렸다. 2008년 동아대학교 예술대 음악학부에서 초빙교수로 퇴임했다.

실내악작품발표무대(Chamber music) 때의 일화다. 작곡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연주할 작품을 연주자에게 전달할 때 연주자의 작품에 대한 반응에 주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본 무대에 올릴 작품에 관하여 이 연주자는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작곡자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이 연주자는 자존심 차원에서 작곡자에 대하여 우위적 존재감을 보였다고나 할 수 있을까? ... 어쨌든 일반적인 연주자의 자세는 아니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로 기억된다. 사람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일은 아마도 자존심을 격하하는 언행일 것이다. 이 일에서도 작곡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자존감의 상흔을 느끼게 된 것이다. 쉽게 표현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어떤 위로로도 상처받은 마음은 치유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연주자, 정확히 표현해서 첼리스트는 안하무인 자세로 내 작품을 대하는 것 같았다. 작곡자인 나는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사람이 타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며 특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일인 것 같다. 타인의 가슴에 박힌 자존심을 존중하는 것은 마치 자기의 소중한 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과 동질의 것이리라. 마치 자기의 소중한 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 연주자는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작곡자의 곡은 연주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무응답을 했던 것이고, 나중에야 악보를 펼쳐 보고 작곡자에게 기꺼이 이 작품을 연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해왔다. 작곡자인 본인도 흔쾌히 연주자의 사과를 받아들여 그 당시 실내악작품발표회는 성황리에 끝내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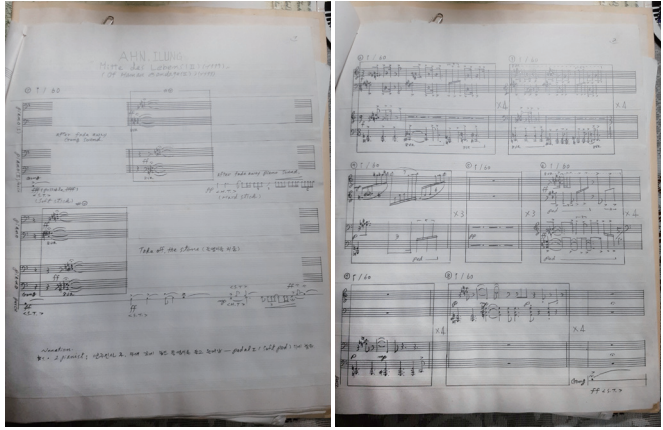
재론인 것 같지만 그때 그 무대에서 잊을 수 없었던 에피소드는 바로 자존심 강한 첼리스트의 자세였던 것이다. 여러 차례 가진 발표무대에서 이처럼 잊혀지지 않은 무대는 곧 자존심이 작용된 무대였기 때문이라고 기억된다.

연주자와 작곡자 모두의 자존감은 소중하다는 차원에서 동일한 것 같다. 쉽게 표현하곤 하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 더 말해 무엇하랴. 참으로 “자존심”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소중한 것인가 보다.

너와 나의 자존심은 서로가 존중해야 할 요소이기에 더욱 값지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작곡자인 나의 이 실내악연주무대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이 추억의 무대가 되었고 고생했던 연주자들을 잊을 수 없다. Clarinet의 정우영, Cello의 유대연 그리고 Piano의 원영아는 그 추억 속의 주인공들이었다. 내 삶의 한 축을 이룬 자존감 넘치는 인물들이었다. 회고컨대 이들 연주자들은 당시, 항상 앞서서 연주무대를 꾸렸던 인물들이었던 것을 기억 속에 남겨 두었다. 잊을 수 없는 당대의 음악계였음을 기억하고 있기에 그들이 형성했던 당시의 연주무대는 나의 영원한 회고록에 기록해 두고 싶다. 이른바 그때 그 시절의 부산 음악계를 느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날의 풍경이지만 소위 그때 그 시절의 부산 음악계를 선하게 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 나 역시 그 시절에 열렬히 음악활동을 이어갔고 부산을 앞세워 갔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의 부산 음악계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고컨대 내 삶이 당대에는 추억거리가 되리라고는 여기지 않았었다. 다만, 그 시절 음악계 상황에 맞는 성실한 음악활동을 했을 뿐이다. 이 시점에서 회고해 보니 그때 그 시절의 음악활동 특히 창작음악활동에 하나, 둘씩 추억거리를 심는 일을 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생의 한 가운데(II) 자필악보, 2000년 독일 다름슈타트 아카데미 현대음악제 <안일웅 작곡 조명 초상("Portrait)의 밤>에서 공연

당시, 부산창작음악계는 고갈상태처럼, 부진을 면치 못했다. 참으로 보기 흉한 상태의 창작음악계였음을 솔직하게 털어 놓는 고백 아닌 고백인 셈이다. 지금 생각하니 참 딱했던 그 시절의 부산 창작음악계였다. 부끄럽다. 까닭은 많았다. 당시에는 정부지원이나 지원단체도 없었다. 오로지 음악인 스스로에 의해서 영위되었던 음악계였다. 특히 창작음악계는 작곡자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영위되었다. 작품연주무대가 드물었던 이유다. 독창회 혹은 독주회 같은 연주무대에 비해 창작작품 발표무대는 당시에 기근 상태였다. 이런 까닭에 그 기근 상태는 암암리에 용납된 상태였고 용인되어져 갔었다. 그 시절의 부산 창작음악계는 자존심 같은 고급스런(?) 말은 할 수 없었다. 그건, 연주자나 작곡자 모두가 같은 상태였다. 타인이나 본인의 자존감은 논의의 상대가 못된 셈이다. 이유는 너 혹은 내가 내놓을 만한 이른바 '꺼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내놓을 만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자존심을 존중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부산을 느껴볼 수 있는 것은 낙후된 음악계 자체였다.

사진작가 여승진의 히든플레이스

폐허에서, 다시



글·사진. 오성은

소설가.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초빙교수. 쓴 책으로 소설집 『되겠다는 마음』, 에세이 『속도를 가진 것들은 슬프다』, 『사랑 앞에 두 번 깨어나는』, 『여행의 재료들』, 『바다 소년의 포구 이야기』, EP 앨범 <This is my>, 단편영화 <응시>, <항기>가 있다.

해가 갈수록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 어쩌다 맺어진 인연이라 해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루하루가 고단해 마음의 백분율을 재분배하는 일이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니 인연이란 이미 맺은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로 굳어져 가는 게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그에게는 단숨에 마음이 기울었다. 그날 나는 다짜고짜 그에게 다가가 딸을 카메라에 잘 담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우리는 단 두 번,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스치듯 만난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딸이 있다는 걸, 그 딸이 갓난아이라는 걸, 내가 사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겁 없이 사진 에세이를 낸 적이 있으며, 그럼에도 카메라라는 기계를 잘 다룰 줄 모른다는 것까지 세세하게 알게 되었다. 그의 눈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도 딸이 있다고 했다.

게다가 나는 그로부터 최근에 튀르키예에 다녀온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다. 대지진의 현장에서 그는 거대한 공포를 마주했고, 그런 중에도 카메라를 통해 참혹을 찍어내야 하는 어떤 아이러니 속에 있었다. 그는 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나는 그를 더 알아가고 싶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에 당황했지만 이내 나의 진심을 알아차린 듯 보였다.

“어머니와 자주 가던 청국장집이 좋을까요?”

그는 며칠 뒤에 돼지국밥은 어떠냐고 물어왔다. 그다음에는 중국음식점이었다. 그런 고민의 과정을 거쳐 우리는 물만골 초입에서 다시 만났다. 우리의 목적지는 황령산 중턱이었다.

그가 데려간 황령산 중턱은 정말로 산 중턱일 뿐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다, 그곳에는 모든 게 있었다. 그는 차 트렁크에서 캠핑용 의자 2개와 테이블을 펼치더니, 처형이 운영하는 도시락 전문점에서 직접 사 온 도시락을 주섬주섬 꺼내었다. 태양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다. 빛과 그늘이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 수풀 사이로 바다를 낀 이 도시의 민얼굴이 등성등성 드러났다. 나는 차에 통기타를 실어두었는데, 딱히 연주할 생각도 없으면서 구태여 그걸 꺼내어 테이블 옆에 세워두었다. 그러자 무언가 완성되었다. 고 나는 생각했다. 그도 꽤 흡족해 보였다. 별이 좋은 수요일 오전이었다.

산에서 먹는 음식이야 무얼 먹어도 만족스러울 테지만, 그 도시락은 유독 특별했다. 고슬고슬한 버섯나물 밥과 매콤한 오징어볶음, 도톰하게 옷을 입은 새우튀김과 고기전은 도시락이라고 하기엔 과분한 정성이 들어가 있었다.

“처형이 워낙 솜씨가 좋아요.”

수줍게 웃던 그는 다른 사람은 추어올리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말하길 싫어했다. 그러면서도 어쩌지 못해 한 시절을 추억할 때는 곧장 소년의 낯빛이 되었다.

그는 영화 스틸 포토그래퍼로 촬영 현장에 대해 혹독하게 배웠고,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통해 기록 사진에 대한 두각을 드러냈다. 그는 대사관 공식 일정을 종종 촬영하는데,

어느 날 한 장관이 자국으로 돌아간 뒤에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을 두고, 오래 간직할 만한 일이라며 뿌듯해했다. 사진작가로서의 보람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캐논 아카데미에 소속되어 사진을 교육하기 시작했고, 몇몇 잡지사의 메인 포토그래퍼로 활약하기에 이르렀다.

“저도 문학 특기생이었어요.”

그가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내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에게는 어딘가 모르게 문학적인 기운이 감도는, 말하자면 내가 한 시절 마음을 내어놓고 따라던 문학청년의 기운이 있었다. 그는 시를 썼다고 했다. 문학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인이나 작가보다는 사진에 이끌렸다고 했다. 그는 결국 군대를 다녀와 사진학과에 편입하게 된다. 그의 포트폴리오는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아이들이었다. 당시 심사를 봤던 교수님은 그에게 부감(俯瞰)으로 아이들을 내려다보는 그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축구 골대 위에 올라가서 찍었다고 이실직고했다.

‘성실한 사진작가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 태도와 윤리가 될 줄은, 몇 년이 지나 그를 작가로 만들어낼 줄은 그때의 그는 몰랐을 것이다.

그를 처음 만난 순간이 떠오른다. 국립해양박물관의 컨퍼런스룸에서였다. 국제해양영화제(KIOFF)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고, 내가 콘텐츠 프로그래머로 임명되던 날이기도 했다. 소설가라는 직업인으로서 어색하기 짝이 없는 자리였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분 좋은 긴장이 온몸을 훑고 있었다. 자문위원들이 안건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는 중에 어느 회의가 그러하듯 침묵이 공기를 날카롭게 베어내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때 마침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그 침묵을 메웠다. 당연하게도 나는 그 소리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제야 무언가 묘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는 회의장의 발언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 침묵의 순간을 찾아내어 부드럽다면 서도 재빠르게 셔터를 눌렀다. 그는 회의 내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오직 셔터 소리만이 그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그가 추구하는 ‘사진’이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그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포착해내는 사람. 그렇기에 누군가의 발언이 끝나치는 찰나, 그제야 그가 출현한다. 장관이 그에게 호감을 내보이며 감사의 편지를 전해왔듯 그는 성실히 자신의 역할에 임하는 것이다. 그건 그의 직업의식, 아니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는 튀르키예에 다녀왔어요.”

그는 어렵사리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해주었다. 만료된 여권의 재발급, 급히 오른 비행기, 여진으로 목숨을 잃은 스페인의 구호대, 참혹한 폐허의 현장에서도 셔터를 눌러야 하는 사진가의 운명, 그럴수록 폐허가 되어가는 마음의 상태, 건물이 쓰러지며 분진이 일어나는 대지진의 중심에서 느꼈던 외로움,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고 되뇌었던 의지, 마음, 희망, 그리고 가족.



튀르키예 하타이주(Hatay) 한국 NGO 단체의 인명 구조 및 수색 활동 중. 사람의 향기가 넘쳐났던 골목들이 흙빛이 되어있었다.
2023 © 여승진

그는 가족이 있는 이곳, 부산으로 꼭 돌아와야겠다고 결심한다. 돌아온 세상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예감을 품은 채였다.

그는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재난 현장을 기록하는 건 시간을 기록하는 일과 다름없었고, 때때로 송고함이 깃들기도 한다. 오늘날 다큐멘터리 사진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의 사진작가 외젠 앗제는 그야말로 파리의 모든 것을, 특히 사라져가는 옛 모습을 기록했다. 나는 그에게서 앗제의 실루엣을 보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왜 튀르키예로 떠나야만 했던 걸까.

“돌아온 이후로 확실히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그게 무엇인지 이제 공부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폐허에서, 그는 달라져 돌아왔다.

불쑥 내가 좋아했던 만화 주인공이 떠올랐다. 그 책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강하다는 것은 약함을 아는 것, 약하다는 것은 겁을 내는 것, 겁을 내는 것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강하다는 것이지.’

그러고 보니 수염을 덩수룩하게 기르고, 모자를 깊이 눌러쓴 그가 『20세기 소년』(우라사와 나오키)의 주인공 켄지처럼 보이는 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20세기 소년이 세상을 만나는 방식은 다소 오래돼 보일지도 모르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켄지가 악당과 싸우기 위해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듯, 그는 카메라를 들고 진지하게 세상을 응시하는 중이다.

우리는 아직 산 증턱에 있었고,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결정해야 했다. 저기 저곳에 한점으로 정상이 보였다.

“조금 더 해보죠, 작가님.”

그는 나에게, 나는 그에게 비슷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별이 좋은 어느 날 다시 만나기로 했다. 카메라와 기타와 지켜야 할 무언가를 손에 쥐고서.

대담·사진·여승진

사진가. 로우패인터 스튜디오 운영, 캐논 아카데미 강의, 노블레스 매거진 영남판 사진 촬영, H.art 매거진 촬영, 기타 국제 행사 및 프리랜서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다.



뉴욕, 지나는 사람들 속 한편에서
2017 © 여승진

나누는 밥



박주호, <마음-starting mind->, 2022, oil on canvas, 116.8×91.0cm



박주호, <마음-starting mind->, 2022, oil on canvas, 145.5×97.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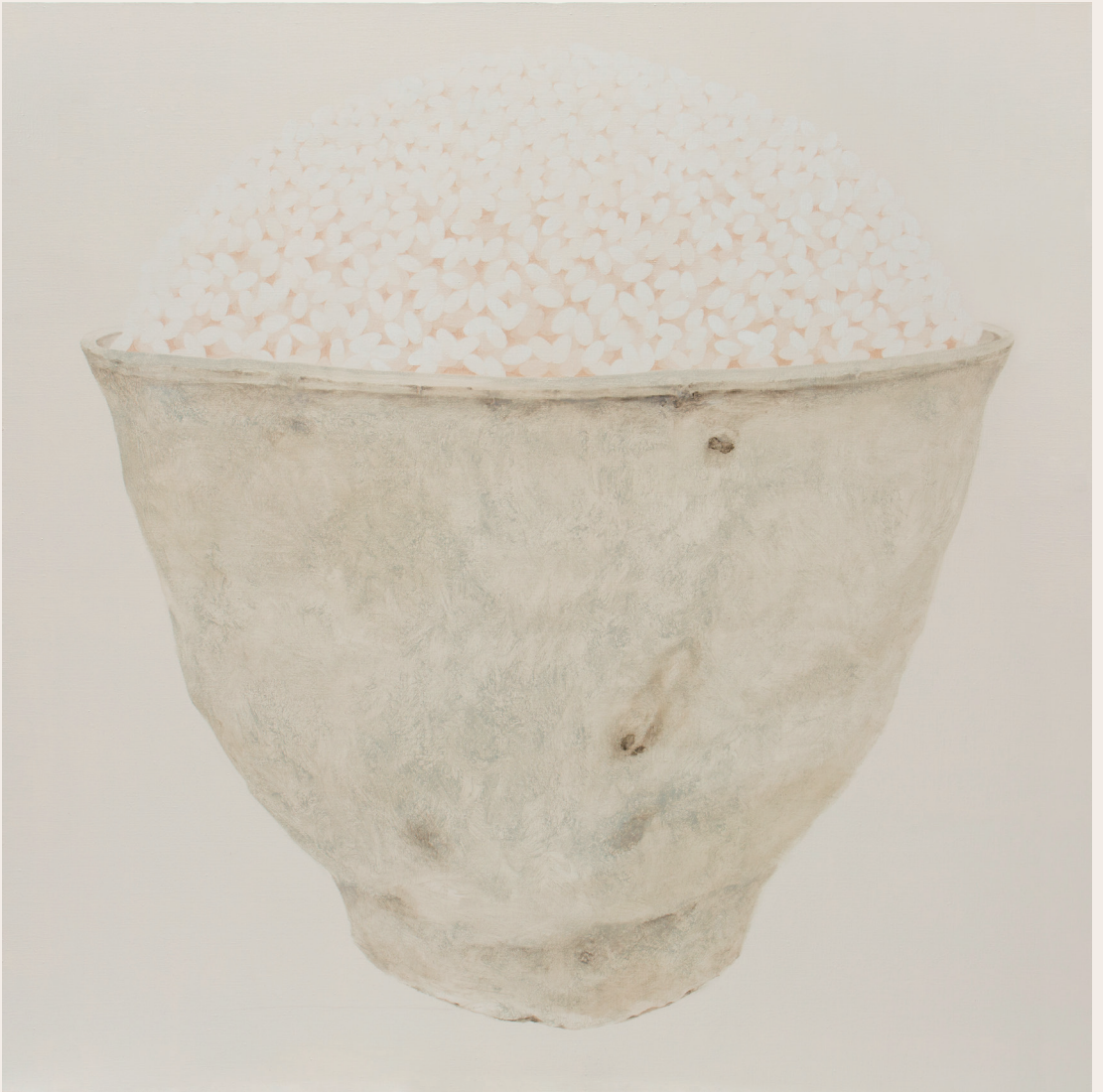
“저는 밥을 그리는 박주호입니다.” 어느 자리든 주저 없이 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곤 하였습니다. “밥 = 박주호”라는 수식처럼, 밥을 제외하고 저를 생각하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밥은 제게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저와 그림들은 한 몸인 듯 의심이 없었고, 저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밥을 빌려 그림도 그리고, 전시도 하고, 돈도 벌고, 밥도 먹고 살았으니 밥을 그리는 일은 저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에 생각이 깊어지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신기한 일이지만, 작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려 할수록 동시에 제 마음은 작품에서 멀어져갔습니다. 진지한 노력들이 도리어 해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지려는 노력은 마이너스 값을 씌운 듯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작품들도 덩달아 저의 어떠한 노력과 시도에도 아무런 대답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와 같이 있어 주지 않는구나!” 외롭고 답답하고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운한 생각에 화가나 밥 그림을 등지고 멀리하였습니다.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란다.” 감정을 있는 대로 내면, 알아듣겠지 싶어 있는 대로 토라진 척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밥에게 한 무례한 행동들이 저에게 무례한 행동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더 잘 알아차리려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라 스스로 긍정하며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시근이 없었습니다.” 마흔 넘어 시작된 감정들이 철없는 것임을 알고 돌아 돌아 다시 밥을 그리려고 몸을 움직였을 때, 제 마음에 ‘그래도……’라는 아쉬움과 애증이 남아있음을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문득 밥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와 나의 작품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감정이 회복되자 밥과 화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아 그림을 그려 나갈 때, 소중한 이들의 위로와 격려가 이전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마음 공부도 그들의 마음을 빌려, 비로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지은 밥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은 그 밥, 그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글·사진. 박주호

시각예술 작가. 1980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현재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밥’을 통해 ‘마음’을 알아차리고자 20회의 개인전과 250여 회의 단체전을 통해 세상 그리고 자기와 소통하고 있다.



박주호, <살 -Flesh->, 2017, oil on canvas, 181.8×181.8cm

따뜻한 연출가 허석민을 만나다



허석민 연출가 _권순일 촬영

글. 이기호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 연극영화학부 교수. 대학에서 연출과 연기를 지도하고 있으며,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작으로 안톤 체홉의 <갈매기>, <세 자매>, <벚꽃동산>을 연출했고, 심리학을 연출작업에 적용하는 연출가로 유명하다. 프로이트, 라캉, 융의 정신분석이론 연구자로도 알려져 있으며, 부산연극에서 젊은 연출가들의 멘토로도 활동하고 있다.

근래 들어 부산연극계에서 젊은 연출가들의 활동이 심상치가 않다. 연출가들 대부분이 부산연극이라는 이름 아래 이곳 부산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몇몇 젊은 연출가들로부터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활동 영역을 부산이라는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이르기까지 폭을 넓혀가는, 즉 활동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부산에서 제작해 부산과 서울에서, 서울에서 제작해 서울과 부산에서 공연하고 있다는 것. 대표적인 젊은 연출가로 최용혁, 허석민, 송근욱, 박용희, 박한별, 조지원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젊은 혈기에 비추어 부산 무대는 너무 좁은 것인가? 아니면 연극 활동에 대한 관점이 달라서인가? 연극 제작과 활동 방식을 전환한 젊은 연출가 중에서 ‘극단 따뜻한 사람’의 대표 허석민을 만나서 그의 생각과 포부를 들어보았다.



<컨테이너>, 극단 따뜻한 사람, 2023

기호 <컨테이너>가 대한민국 신진연출가전에 초청되어 서울에서 공연하고 왔죠. 서울에서 공연해보니까 서울연극과 부산연극의 차이점이 있던가요? 아니면 서울에서의 공연에서 특별히 느낀 점이 있나요?

석민 서울공연을 혜화동 '선돌극장'에서 했는데, 극장 규모가 부산의 소극장과 비슷하였습니다.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반응과 비평도 부산과 비슷했구요. 서울이라고 특별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느낌도 못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연극인들과의 대화에서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 평가해 주더군요. 서울공연에서 느낀 점이라면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기호 '극단 따뜻한 사람'이 한국연극협회 부산지회에 소속을 두고 있어서 연극 활동의 주 무대는 부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활동 영역에 관한 생각을 좀 듣고 싶네요.

석민 극단이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부산에서 연극작업을 하는 건 맞지만, 공연을 부산에서만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에서만 해야 할 이유도 없고,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지역에서 공연하려고 합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무대도 많고, 또 다양한 관객들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극단 배우들도 공연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고, 또 서울에서도 공연하길 원하니까요.

기호 지금까지 주로 연극제 출품을 통해 전국 무대로 진출해왔는데, 이를테면 <컨테이너>로 밀양공연예술축제 참가, <복길 잡화점의 기적>으로 부산연극제, 김천가족극축제 등에 참가했고, 그 외에도 작강연극제 참가 등이 있고,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만, 혹시 연극제 참가가 아니라도 다른 지역과의 연극 교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석민 연극제가 아니어도 파생되는 다른 지원 사업이나 극단 자체 기획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공연장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된다면 다른 지역 극단과 교류를 진행해 볼 생각이요, 앞으로 연극과 뮤지컬을 창작해서 부산과 서울에서 공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허석민 연출가가 공부를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온 게 2014년이죠? 올해가 만 10년째인데, 2017년도에 ‘극단 따뜻한 사람’을 창단하고 지금까지 7년 정도 대표 겸 연출가로 활동해 왔고, 그동안 수상도 많이 하고, 언론의 주목도 받게 되었어요. 대표작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석민 제가 쓰고 연출한 작품이 <컨테이너>와 <아빠>인데, <컨테이너>로 상을 많이 받았어요. ‘김문홍 희곡상’을 받았고, 제22회 밀양공연예술축제의 ‘차세대 연출가전’에서 신진상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신진연출가전에 초청도 받았고요. <아빠>는 대표작이라기보다 대표작으로 만들고 싶은 작품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고, 작년에 공연했었는데, 올해 다시 연출하면서 수정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작업 과정을 거치는 중입니다.

기호 <컨테이너>에 대해 좀 더 얘기해볼까요? 허석민 연출가의 첫 번째 성공작이기도 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석민 아닙니다. <컨테이너>를 처음 공연했을 때는 반응이 별로였어요. ‘김문홍 희곡상’도 받았고, ‘제2회 내일의 걸작’에도 출품했는데 관객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기존 연극과 차별성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연출을 하면서 대본을 계속 수정했는데, 관객 반응이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22회 밀양공연예술축제의 ‘차세대 연출가전’에 출품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학극전에 출품한 경성대 팀한테서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대학부가 성인부보다 더

치열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는 누구지?’ 했는데, 그때 김동규 연출을 처음 봤어요. 대학극전에서 <고등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더라고요. 김동규 연출을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걸 시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무대디자인을 완전히 잊었어요. 프로시니엄 무대로 연출해 왔던 작품을 상자 무대의 구조에 맞게 사면 무대로 완전히 바꿨거든요. 실험을 한 거죠. 그 결과로 제가 신진상을 받고 이경진 배우가 연기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신진연출가전에 초청도 받았고요. 결국 <컨테이너>로 지금의 이런 인터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컨테이너>가 처음부터 완성된 작품이 아니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험한 결과인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호 이쯤에서 가벼운 질문 하나 해 보죠. 극단 이름을 왜 ‘따뜻한 사람’이라고 지었나요?

석민 단원들 모집할 때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데요. 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배경은 제 흑역사인데, 제가 처음 연출을 했을 때는 연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배우들을 거칠게 다뤘고, 결과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무시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배우들의 불만이 커졌죠. 그즈음 제가 혼자 술 마시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 좀 따뜻해져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극단 이름을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극단 이름을 그렇게 만드니까 작품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극단 이름 때문에 들어온 단원들도 많고요.

기호 <컨테이너>로 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받은 상 중에서 ‘아름다운 연극상’도 받았네요?

석민 네, 정말 특별한 상을 받았어요. 이 상은 단일 작품에 대한 상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의 연극 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 거기다 역대 수상자들이 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이고, 그분들의 작업 마인드를 존중해왔는데, 그분들이 받았던 상을 제가 수상했다는 게 정말 기뻐거든요. 내가 연극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내가 부산에서 연극을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만약 언젠가 제가 이 상의 시상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누군가를 시상하게 된다면 따뜻하게 시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기호 흑시 롤 모델이 있어요?

석민 벨기에 연출가인 이보 반 호프의 연출 작품을 보면서 영상과 무대의 실험적인 연출에 압도당했고, 그의 인터뷰를 보고서 나도 연출을 저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의 연출

세계와 작업 마인드를 동경하게 되었고요. 김광보 연출가도 롤 모델인데, 부산 출신으로 부산시립 예술감독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국립극단 예술감독이신데, 그분의 발자취와 마인드를 따라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호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어떤 연출가가 되고 싶어요?

석민 내가 보는 세상을 구현해서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출가가 되고 싶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사회적 사건, 이슈를 던져서 관객들과 공감하고, 진보적이고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연출가가 되고 싶습니다.

기호 이견 질문이 아니고, 제가 허석민 연출가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롤 모델 질문과 연결해서 추천하고 싶은 연출가가 한 명 있는데, 바로 현대연극 연출가로 신화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브룩인데요. 저서 『피터 브룩』이 번역되어 있으니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영국 런던에서 라트비아 출신의 러시아-유대계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17세에 <닥터 파우스트>를 연출하면서 연출가의 길을 걸었고, 이후 세계적인 연출가가 된 사람으로 작년에 97세를 일기(一期)로 작고했는데, 그분의 인생과 연출 세계를 접하게 되면 연출가의 길이 좀 더 명확해지고 넓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윤영선 희곡집도 추천하고 싶네요. 극작술에 대한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할게요.

대담·사진·허석민

작가, 연출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청년 단체인 극단 '따뜻한 사람'의 대표이기도 하다. 대표작으로 <컨테이너>, <복길잡화점의 기적>, <아빠>를 연출했고, <컨테이너>는 제22회 밀양공연예술축제 신진상을 수상하였다. 최근에는 2023년 한국연출가협회 신진연출가전에 초청받아 대학로 '선돌극장'에서 대한민국 청년대표로 공연을 한 이력이 있다. 부산과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따뜻한 공연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될 거야



글·사진. 박보은

로컬 생산자. 디자인 스튜디오 '로크 스튜디오' 운영. 부산에서 로컬 관련 기획 및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역에 대한 이야기와 연구를 기록하며 써내려가고 있다.

한적한 골목길을 걷다 보면 길 한쪽에 작디작은 음식점 하나가 눈에 띈다. 좁은 골목길과 가게 입구에 걸려있는 노렌⁰¹이 일본 가정식 식당을 떠올리게 한다. 노렌을 지나 나무 문을 열면 10평 남짓한 가게가 눈에 들어온다. 작은 테이블 두 개와 바가 놓인 이 공간은 비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채식 식당이다. 가게는 요일에 따라 셰프가 바뀐다. 나까 님과 주영 님이 가게를 요일별⁰²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다른 '그날의 메뉴'를 준비한다. 나는 월요일, 나까 님이 운영하는 '나유타 카페'에 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까 님이 환한 미소와 맑은 목소리로 맞이해 준다. 나는 혼자 앉기 좋은 일자형 바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셰프와 눈이 마주치는 자리지만,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당한 자리이다. 그녀와의 대화는 근황 이야기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나는 인터뷰를 빌미로 이곳 '나유타 카페'의 시작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일본에서부터 나유타가 시작되었다고 했다. '어떻게 일본에서 한국으로 식당이 옮겨올 수 있지?' 의아함을 가질 수 있지만, '나까'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그녀는 일본에서 왔다. 그녀는 도쿄, 코엔지에서 2011년부터 삼 년 동안 비건 식당을 하다 2014년에 한국으로 왔다고 한다. 나는 문득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가 궁금해져 요리를 하고 있는 나까 님께 물어봤다.

나까 저는 원래 음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음악을 시작으로 문화예술 기획 분야로 활동을 확장해 나갔고,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는 도쿄의 커뮤니티에서 비건 식당 '나유타 카페'를 운영했어요. 2011년, 부산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아티스트로 참여하게 되며 부산에 오게 되었어요. 이후, 부산에서도 음악 작업을 하기 위해 일본과 부산을 오고 갔어요. 3년 동안 오가며 제일 힘들었던 점은 부산에 비건 식당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비건 친구들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부산에도 비건 식당이 필요하단 생각 하나로 장전동에 왔어요.

그렇게 '나유타 카페'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오며, 부산에서도 비건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채식에서 느껴지는 심리적 거리감을 많이 줄이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항상 음식을 내놓을 때 요리 설명을 빼놓지 않는다. 간혹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는 이 설명이 정말 도움이 된다. 무국적 비건 식당이라는 가게 정체성처럼 경계 없는 다양한 요리를 선보인다. 이날의 음식은 일본 가정식 소바인 '아게비타시 냉소바'였다. 아게비타시는 '튀기다'와 '액체에 담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말로 풀어보면 '일본식 튀김 채소 절임 냉메밀'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아게비타시 냉소바는 다양한 채소를 맛볼 수 있는 여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메뉴다. 특히, 튀김은 차가운 소스에 절여져서 여름에 먹기 딱 좋은 튀김 요리이다. 면 위에 올라가는 채소는 유기농으로, 해바라기유에 튀기고 특제 썬유에

절여서 만들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보통 짜유는 가츠오부시(가다랑어포)로 맛을 내기 때문에 비건이 아니지만, 이곳 나유타에서는 간장과 같은 비건 식재료를 사용하여 짜유의 맛을 낸듯하다. 나유타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는 식물성이며 논GMO 재료와 유기농을 사용한다. 지구를 생각하는 건강한 식재료를 만든 음식에서는 그녀의 철학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음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나카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률이 14%에서 18%인데,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률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에요. 대중교통을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고기를 줄이거나 안 먹는 실천은 일상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비건은 탄소 배출 줄이기에 가장 효과적인 일상적 실천이에요. 또한 수입 식재료는 해상이나 육로 혹은 항공로를 통해 운송되다 보니 탄소 배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유타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로컬 식재료를 사용해요. 요즘은 기후 위기가 너무 심각해지면서 '기후 불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여덟 살 아이도 기후 위기로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악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앞으로의 기후 위기 문제, 동물권 문제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즐거운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요. 사람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해요. 최근에도 기후 위기를 주제로 비거니즘을 접할 수 있는 활동들을 기획하고 있어요. '기후 위기'나 '동물권'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인지했을 때,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무너지지 않고 실천 과정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 공유해 나가고 싶어요.

어쩌면 그녀의 요리와 음악 그리고 문화예술 기획은 '나유타'라는 이름에서 시작되는 듯하다. '나유타'는 산스크리티어로 모든 걸 품는다는 의미이다. 세상에는 기후 위기, 동물권, 환경오염, 차별, 폭력, 전쟁, 탈핵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떠올렸을 때, 개개인이 힘들지 않도록 치유 역할을 하는 것이 나유타의 존재 이유라 한다. 결국, 나유타는 모든 것을 품고 성소수자, 비건, 외국 이주민 등 모든 존재가 서로를 관용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되고자 한다. 누군가는 배제되고 단절되는 사회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그래서 그녀가 부르는 노래에는 개인으로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함께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가고 싶은 소망이 담겨있다. 최근 그녀는 8명의 아티스트(이하루, 옥수수, 예람, 나까, 미루, 이형주, 이내, 봄눈별)들과 동물 해방을 위한 컴필레이션 앨범 <공명> 가사집⁹⁹을 제작했다. '공명'은 음악과 너무 잘 어울리는 단어다. 악기는 진동수에 따라 고유의

음을 만들어 낸다. 앨범에서 '공명'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음악의 의미만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나카 '공명'은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 그리고 행동에 공감하며 자신도 그에 따라가는 의미도 지니고 있어요. 노래는 죽어가는 생명들과 그들의 고통에 공명하고 아파하는 우리 주변의 동료들을 위해 만든 노래예요. 음악을 듣는 동안만이라도 위로와 평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명> 노래들 중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될 거다' 가사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되길 바라며 불러요. 저의 노래는 일상에서 사적인 영역을 차지할 수 있지만, 작은 관심들이 모여 나중에는 사회적 의미를 품고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자신이 하는 활동을 세 가지로 영역을 나눠 설명했다. 음악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사적인 영역이고, 문화예술 기획은 메시지를 담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공적인 영역이라고 한다. 그 중간에 위치한 요리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 자신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했다. 특히, 음악으로 사회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예술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또한 문화 기획⁶⁾ 프로그램과 요리를 통해 '기후 위기'라는 주제를 재미있게 전달한다. 단순히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직접 느낀 감정과 생각을 예술로 풀어내는 그녀는 '실천하는 예술가'였다. 이야기하던 중 그녀는 매실 에이드를 건네주었다. 한국에서 먹어왔던 달기만 한 매실이 아닌, 깔끔하고도 하이볼다운 맛이였다. 한국 매실과는 또 다른 맛에 놀라며 어떻게 만든 매실청인지 물어보니, 청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비교적 깔끔한 맛이 생긴 듯하다. '나유타'의 음식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맛을 느끼게 해 준다. 자주 방문하다 보면 공간에서는 익숙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음식에서만큼은 매번 새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유타 카페'에서 요리하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으면, 영화 <카모메 식당> 주인공인 '사치에'가 떠오른다. '사치에'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카모메'라는 일식당을 차리고, 일본식 주먹밥을 만들며 현지 사람들과 소통한다. 좋은 재료를 고집하는 '나유타'처럼 영화 속 '사치에'도 좋은 재료를 잔뜩 쓰고 음식에 이야기를 담아 사람들을 위로한다. 그녀도 타지인 한국에 와서 '비건'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요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건네고 있다. '같이' 그리고 '함께'의 가치를 음식으로 전달한다. 영화 <카모메 식당>에는 식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사가 등장한다. "카모메 식당은 레스토랑이

아니라 동네 식당이에요. 근처를 지나가다 가볍게 들어와 허기를 채우는 곳이죠.” 영화 <카모메 식당>은 음식을 파는 식당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식당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영화이다. 장전동의 한 시장 안에 위치한 작은 식당 ‘나유타 카페’도 오래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치유가 되는 음식을 만들고자 한다. 그녀는 오늘도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네며, 사람과 지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 01 노렌: 일본의 가게나 건물의 출입구에 걸려있는 천
- 02 월·화: 나까, 수·목·금·토: 주영
- 03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해 가사집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음원을 감상할 수 있다.
- 04 9월 3일에는 자연과 미래 ‘비거니즘’을 주제로 한 워크숍 ‘기대어 깃든’을 진행한다.



대담. 나까(nacca)

주식회사 나유타 대표. 나유타 카페, 나유타 키친을 운영하며 싱어송라이터로 활동 중이다.

도서전을 해변에서 연다고?

글. 정진리

정체성이 짙은 순으로 남편, 소설연구자, 시간강사,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사무국장, 베리테 출판사 대표이다.

2023부산수영구한국지역도서전

책의 바다, 원더랜드로

2023.10.20. ————— 10.22.

개막식 10.21 18:00
광안리 만남의 광장

장소
광안리 해변 일원

www.sybookfest.kr

주 최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지역출판연대 주 관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2023 부산수영구한국지역도서전 조직위원회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메시나협회 동원개발 에스케이에코플랜트
협 력 교서점 라울프라다바코 밀빅마켓 한한

2023 부산수영구한국지역도서전 공식 포스터

올 10월 광안리 해변에서 국내 처음으로 책 잔치가 열린다. “책의 바다, 윈더랜드로”를 축제 테마로 삼은 <2023 부산수영구한국지역도서전>이다. 책 문화를 수영구의 특색인 광안리 바다 환경과 융합해, 바닷가의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독서와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책(지식)과 해변(바다)은 연관 짓기 어려운 관계가 아니다. 일테면 서양 문명의 근원이라 할 만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부터 이미 바다를 노래하고 제 정체성의 하나로 삼고 있다. 그런가 하면 토마스 만은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에서 해변을 일상의 저편인 미학으로 은유했다. 쿠바 코히마르는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시골 어촌이었지만 『노인과 바다』 이후 쿠바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다.

이처럼 책과 바다의 연결은 친숙해 보이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해변 도서전이 열린 적이 없다. 아마도 책의 물성이 아외에 취약한 까닭일 것이다. 햇빛이 드는 책장에 종이가 바래는 현상에서 알 수 있듯, 자외선은 펄프나 섬유를 산화해 변색시킨다. 습기 또한 종이를 곰팡이에게 내주거나 찌글찌글하게 만들어 책을 망친다. 모든 책을 일일이 랩으로 싸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해변 도서전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열려왔다. 책과 바다가 관념적으로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첫째, 끝없는 바다처럼 책 또한 지식의 망망대해다. 둘째, 바다는 술한 생명체의 생태계이며 책은 다양한 시각과 경험, 스타일로 구성된 다중우주다. 셋째, 인류가 바다로 나아가 더 큰 세상을 마주했듯 독서 또한 지식을 향해하며 새로운 인식을 발견한다. 넷째, 해변이 물과 물의 경계라면 책은 앉과 무지의 경계다. 다섯째, 해변이 누구나 모여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인 것처럼 독서 또한 갖가지 형태로 타인과 읽기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여섯째, 파도의 저항이 우리를 물으로 밀어내듯 책 읽기는 유튜브 등 다른 매체와 달리 얼마간의 저항과 사투해야 한다.

광안리 해변 일대에서 열리는 올해 한국지역도서전은 ‘책’과 ‘바다’라는 두 개념어의 유사성을 위와 같이 호출하여 유례없는 독창적인 책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도서전의 취지는 지역출판의 가치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려는 것이다. 수도권이 국내 출판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도 각 지역은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책으로 출간해 왔다. 도서전은 그 다양한 출판물과 문화예술을 한데 모아,

전국의 출판인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변 너머를 나아가게 되면서 인류가 다른 지역을 발견하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역의 가치를 호출하는 행사를 해변에서 개최하는 것이 어색하지만은 않다.

계다가 수영구는 광안리 해변이 아니더라도 책 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거느리고 있는 문화도시다. 부산에서 출판사와 지역서점이 가장 많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예술적이고 뛰어난 청년들이 수영구에서 저마다 존재감을 발하고 있어, 새로운 문화를 지향하는 열기로 가득한 곳이란 점도 빼놓을 수 없겠다. 이처럼 특유의 문화적 역량과 감수성, 지리적 특색이 책 축제와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 수영구가 한국지역도서전을 개최할 수 있었다.

이번 도서전은 수영구청과 한국지역출판연대가 주최하고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와 도서전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수영구청과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는 올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풍성한 지식과 공명하는 일상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고자 한다. 나아가서는 한국지역도서전을 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망미책방골목 등 지역이 이미 거느리고 있는 책 문화 인프라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도서전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독특하고 색다른 경험은 아래와 같다. 주요 부대행사로는 ▲책을 이미지화한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고민 상담과 더불어 자신에게 어울리는 책을 찾아주는 ‘책 처방’ ▲패들보드 위에서 독서하는 ‘파도타기 북클럽’ ▲시화·붓글씨 등 ‘옛날 책 무료 감정’ ▲다 읽은 책을 가져오면 커피 한 잔과 교환해주는 ‘책기부 커피차 이벤트’ ▲책갈피, 북커버 등 책 관련 ‘공예체험’ ▲릴레이북토크 ▲051FM과 함께하는 출판 주체 인터뷰 ▲전 세계 유학생들이 각자의 언어로 읊어보는 ‘시 낭송’ ▲동화책 내용을 바탕으로 체험해보는 샌드아트 등이다. 독서가 힘들고 지루하다는 인식을 씻고, 일상의 탈출구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환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다. 무엇보다 가장 주요한 볼거리는 한국지역도서전답게 80곳 가까이 되는 지역 출판사와 지역·독립서점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부스 일대다.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2023 부산수영구한국지역도서전>은 광안리 해변으로 산책을 나서기만 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독서광이 아니어도 괜찮다. 해변 도서전이라는 과감한 시도를 테마로 삼은 이번 축제에서 책과 바다가 우리를 얼마나 황홀하게 하는지 체험해보자.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글. 권영훈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에서 근무 중. 예술인의 새벽을 동경하는 문화인이다.

2023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2023.

10. 13. *fri*

10. 16. *mon*

부산시민회관, 가온아트홀, 일터소극장,
KT&G 상상마당 부산, 부산 일원

개막식
10. 14. 16시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BPAM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2023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공식 포스터

부산발 공연예술 유통시장의 발단

지난해 초여름 즈음이었다.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은 공연예술분야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면서 단계별 지원사업 중 '유통'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공연유통'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에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도 부산발 공연예술 유통시장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물밑(?)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선 두 가지 큰 틀에서 목표와 당위성을 찾아야 했다. 첫 번째는 부산에서 마켓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어떤 형식의 마켓을 운영해야 하는 가였다. 200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18회째를 맞이한 서울아트마켓(PAMS), 16회째 이어오고 있는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KoCACA)이라는 국내 대표마켓이 존재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부산의 마켓은 어떤 방향과 의미를 가져야 할까?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형 마켓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의 운영 방식은 바이어와 셀러, 마켓의 본질인 공연유통과 네트워킹은 기본으로 하되, 공연을 관람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축제형 마켓'이 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잡았다. 부산국제영화제(BIFF)와 같이 공연예술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과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켓이 되길 바랐다. 부산은 에든버러 프린지페스티벌과 아비뇽 OFF와 같이 극장이 모여 있거나 길을 막고 교통을 통제할 만한 곳이 한정적이긴 하나, 반대로 어딜 가나 10분 이내로 도심과 산, 바다, 강이 펼쳐져 있는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관광객을 포함한 부산 시민들이 공연예술을 즐기면서 부산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공연예술마켓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부산시민회관을 메인 무대로 설정했다. 올해로 개관 50주년을 맞이한 부산시민회관은 전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공공문화회관으로서 부산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2022년에는 부산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다. 부산 바다와 강강술래를 연상시키는 역동적인 외관의 기둥은 BPAM을 찾는 국내외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국 산업화의 터전인 동천 인근에서 부산거리예술축제도 함께 진행하여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동천은 북항과 만나는 부산의 대표 하천으로, 인접한 부산시민회관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동시에 이끈 상징적인 공간이다. 바다로 이어지는 동천에서의 행사 개최에는 부산 공연예술의 폭넓은 성장과 세계 무대로의 확산에 대한 소망이 함께 담겨 있다.

공연예술의 국제시장

공연예술마켓은 그 목적에 따라 국내형과 국제형으로 구분되며, 운영 형태로는 견본시형, 축제형, 네트워크 총회연계형으로, 장르별로는 종합장르 형태와 단일장르 형태로 나뉜다. BPAM은 국제형, 축제형, 종합장르의 마켓으로 방향을 잡고, 국내외 참가자와 작품 모두가 서로 사고팔 수 있는 그야말로 '국제시장'을 지향한다.

국내 작품 판매가 목적인 경우, 마켓을 찾는 해외 참가자들의 대부분은 '바이어'로서의 개념이 크다. 해외 참가자들도 '바이어'와 동시에 '셀러'로 참여하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의 작품이 BPAM에 참가하여 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미로 진출이 가능한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품의 경우도 국내 작품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전 장르에 걸쳐 소개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예술가들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부산 예술가들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BPAM이 부산에서 '공연예술 국제시장'을 개최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연예술의 물결(A New wave of Performance)

올해 첫 회인 BPAM에서는 총 92개 작품, 500명 이상의 예술가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BPAM을 찾는 해외 바이어도 중요한 손님이지만, 마켓의 승패 여부는 역시나 예술가들에게 달려 있다. 공연예술 현장의 예술가와 스태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작품이 시연되기까지 정해진 환경 속에서 최적의 어시스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국내외 마켓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전략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제시장의 면모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BPAM만의 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새로 시작하는 마켓인 만큼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하여 BPAM에 참가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이 부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길 바란다.

보통의 장벽



글·사진. 강주형

부산문화재단 문화공유팀에서 근무 중. 입사 후 문화예술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변방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중심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도 더 넓은 세계를 본다'는 누군가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활동하고 있다.

살아가면서 길에서 마주친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될까?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담당한 지 어느새 3년 차에 접어들었다. 매년 사업 규모, 내용, 참여자가 똑같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 내가 깨우치는 것도 매년 달랐다. 특히 2021년은 내 삶의 변곡점으로 볼 수 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하나의 언어로 읽고 쓰던, 평범하게 완성된 세계가 단숨에 날아갔다. 낯선 언어와 감각들이 난무하는, 그동안 몰랐던 세계에 순식간에 매료되었다. ‘이방인’으로서 그 세계 안으로 동화되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업을 위해 만난 장애인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30년간 살면서 마주친 장애인의 수보다 사업을 위해 마주한 장애인의 수가 더 많았다는 사실과 사업을 담당하기 전에는 장애인과 소통한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사업 말미에는 소통함에 있어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 요소를 어느 정도 제거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지금의 공간은 문화의 평등을 실현하는 장소일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문화 공간은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쉽지 않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살펴보니, 장애인의 문화권을 위한 일부 사업이 ‘장애인 시설’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장애인은 이동에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술가를 장애인 시설로 초대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우리가 지향하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해소하고 무장애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누구나 다를 것 없는 ‘보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생각했고, 배리어프리 문화예술 콘텐츠 ‘보통의 공간들’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공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다름’으로 구분 짓는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다르기에 서로 낮설어 하는 공간의 차이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공간 이용에 대한 방해 요소가 사라지면 ‘선택권’이 훨씬 많아진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권력’으로 보이기도 한다.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것이 먼저다.

장애인의 문화권을 확장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 문화시설이 가진 배리어프리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내려놓게 할 필요가 있었다. 자신의 공간에 장애인을 초대하고자 하는 8개의 문화 공간 운영자들과 함께 발걸음을 땀다. 이때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 구성이 아닌, 장애인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이용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문화 공간이 자발성과 지속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 공간에 청각·시각 장애인을 초대하는 방식을 구상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림림스튜디오 <와이어드로잉>, 2023

8개 공간이 한 시도는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전후 체크리스트, 공간 운영자 인터뷰, 배리어프리 인식 안내 등을 담은 '키트'라는 결과물을 완성시켰다. 일부 키트는 신청을 받아 기획자, 시민들에게 배포되었고, 언론보도와 온라인 인터뷰 등을 통해 다른 문화 공간으로 퍼져나갔다. 덕분에 2년 차인 올해 24개의 문화 공간이 '보통의 공간'이 되기 위해 모였다. 우리의 시도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놀라운 평범함

사업에 참여하는 공간 운영자들은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것을 깨닫고 놀라워한다. 첫 번째, 자신의 공간에 장애인이 방문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점. 두 번째, 지금까지 진행한 방식과 내용에 장애인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세 번째, 실제 장애인과 공간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이 비장애인과 다를 게 없다는 점들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그저 평범한 수준이기에 더 놀란다.

첫해 참여한 8개 공간에 이어 24개 공간도 누구에게나 평범한 '보통의 공간'이 되려고 한다. 24개 공간의 이야기가 완성되면 그 다음엔 몇 개의 보통의 공간이 형성이 될지 궁금하다. 하지만 17만 명이 넘는 부산시 장애인이 어디서든 보통의 문화를 향유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고도 높은 보통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놀러 와요, 악기의 숲

글. 구선미

부산문화재단 문화공유팀에서 근무 중. 매 순간 잔잔하고 안온한 일상을 원하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방황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2023

일상 속 생활문화
확장화 사업

기타등등

생활문화 커뮤니티 문화지원

기타등등

음악과 생활문화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민 1인 1악기 프로젝트

2023. 5 — 12.

다함께, 가까이, 늘

"다함께, 가까이, 늘"은
부산시민과 예술가들이 "다함께"
삶의 터전 '가까이'에서 문화를 즐기며
'늘' 일상에서 예술과 함께 하며
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 합니다.

부산광역시
www.busan.go.kr

부산문화재단
www.busan.or.kr

부산문화재단

부산일보

2023 생활문화 커뮤니티 문화지원 <기타 등등> 공식 포스터

“중학생이 되었으니 이제 악기는 그만 배워도 되지 않을까?”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점점 높아지는 학원비 걱정에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장 먼저 줄여보고자 했던 것은 드럼 레슨이었다. 하지만 가야 할 학원이 줄어들어서 좋아할 것이라는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이는 드럼을 계속 배우고 싶어 했다. 그렇다고 아이가 그루브 총만한 드럼 신동도 아니었다. 어설프게 간단한 연주 정도 할 수 있는 실력이다. 하지만 드럼을 연주할 때 아이의 표정은 그 어떤 열정적인 연주자 못지않다. 아마도 아이에게 있어 드럼은 시시하고 재미없는 일상에 한줄기 위로가 아니었나 싶다. 감히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아이의 시간에 계산기를 두드린 나를 반성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악기 하나쯤은 연주하는 조금은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악기를 배워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어디에서 배워야할지, 어떻게 악기를 구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배워야 할지 등등 넘어야 할 마음의 관문들이 생겨나 곧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생활문화 커뮤니티 문화지원 <기타 등등>은 ‘15분 도시 부산’의 구현, 즉 삶의 터전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부산 지역 내 9개의 복합문화공간을 거점으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기타, 우쿨렐레 등 다양한 악기를 배운 참여자들은 10월에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한마음으로 뭉쳐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9개의 공간에 모인 참여자들은 배운 악기도 다르고, 기량도 다르지만 음악을 향한 열정은 전문 연주자 못지않다. 진심을 다해 연주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9개의 복합문화공간에서는 전문 연주자의 지도를 통해 기초부터 꼼꼼하게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며, 참여자들의 일상을 빛나는 순간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악기를 배우는 것이 삶에 또 다른 의미가 있으나 이만 즐기는 것을 뜻하는 '기타 등등'이 아닌, 기타를 비롯한 다양한 악기를 배우는 것을 통해 삶의 한편에 여유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기타(guitar) 등등'이 되길 바라 본다.

앞으로도 <기타 등등>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문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들과 문화 서비스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기가 있다면 이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 보세요. <기타 등등>과 함께 신나게 놀아보아요!

아시아 평화와 새로운 인권 연대를 위한 2023 아시아생명평화문예축전

일제강점기 근현대 한국 역사 속에서 여성이 겪었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 독립을 위한 여성의 강인함을 기리는 한국전통연희 기반 '2023 아시아생명평화문예축전'이 지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마하사(연산동 소재 절)와 부산민주공원에서 진행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리는 '일본군위안부 해원상생곳'은 올해 스무 번째로 천도재 봉행, 생명평화 콘서트, 마당극과 현신 초망자극으로 구성되었다. '여성독립군 신명천지한마당'은 부산 동래 출신 박차정, 첫 여성 노동운동가이자 고공농성자로 알려진 강주룡, 제주 해녀 항일운동을 주도한 김옥련 등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약과 생명력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이는 어두웠던 역사를 민족극으로 보듬는 행사에서 민족사의 그늘과 빛을 아우르며 총체예술로서 민족문화제전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아시아생명평화문예축전은 민족극과 전통연희를 통해 지난 역사를 성찰하고, 인권유린과 전쟁이 없는 아시아의 평화와 새로운 인권 연대를 제시하며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큰 마당극판'을 지속해 가고 있다.

정리.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김정)

자료. 민족미학연구소 생명평화제전추진본부 제공

아시아 평화와 새로운 인권연대를 위한

2023

아시아 생명평화 문예축전

『스무번째 일본군위안부 해원상생굿』 +
『여성독립군 신명천지한마당』

23.8.12 (토) 10:00~14:00 마하사
18:00~20:00 민주공원 소극장

23.8.13 (일) 13:00~18:00 민주공원 중극장

- ◆ 주최 : 민족미학연구소 생명평화제전추진본부,
(사)백산안회제선생기념사업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사)부산민예총
- ◆ 주관 : 민족미학연구소 생명평화제전추진본부, 대한불교 조계종 마하사,
창작탈춤페 지기금지, (사)국가무형문화재 아랫녘수록재보존회,
국악연주단 우소락청, 민중문화연구회 수주탈춤페
- ◆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BS 부산불교방송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2023 아시아생명평화문예축전 포스터

B 10/4(수)~10/18(수)
홍티아트센터

**홍티아트센터 입주작가
릴레이 개인전6 이하은**

B 10/5(목)~10/6(금)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한성일상

B 10/5(목)~10/7(토)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 및 망미골목 일대

예술치유 페스티벌

B 10/6(금)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문화다양성 컨퍼런스

🌟 10/6(금)~10/15(일)
어댑티 플레이스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죽음과 소녀>

B 10/7(토)~10/9(월)
부산시민공원

부산생활문화축제

B 10/12(목)~10/13(금)
부산 아스티호텔 그랜드볼룸

부산문화컨퍼런스 II

🌟 10/13(금)
부산민속예술관

젊은소리쟁이 <별과장의 반란>

🌟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행사 일정입니다.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0/13(금)~10/15(일)
용천소극장

부산 연극제작소 동넨 <우리들의 친구, 인간>

B 10/13(금)~10/16(월)
부산시민회관 일대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
부산거리예술축제(BUSSA)**

🌟 10/13(금)~10/21(토)
공간소극장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킹 <마중>

B 10/18(수)~10/21(토)
부산시민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공감, 4인 4색'

B 10/20(금)~11/12(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신세계갤러리

청년예술가 3인전

B 10/21(토)~10/22(일)
감만창의문화촌

감만상상페스티벌

B 10/27(금)
사상인디스테이션

**사상인디스테이션 상설공연
<마이스테이지> 6회차**

B 10/27(금)~11/10(금)
홍티아트센터

**홍티아트센터 입주작가
릴레이 개인전7 최지선**

B 10/28(토)
F1963
F1963 기획공연 <오픈스퀘어> 3회차

10/29(일)
부산민속예술관
젊은 소리쟁이 <영남탈춤광대단>

11/3(금)~11/5(일)
북구문화예술회관
극단 해풍 <제4회 감동진연극제>

11/7(화)
영도문화예술회관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불확실한 세계>**

11/9(목)~11/11(토)
신명천지소극장
극단 자갈치 <파우스트와 카바레뜨 2>

B 11/10(금)
사상인디스테이션
**사상인디스테이션 상설공연
<마이스테이지> 7회차**

11/23(목)~11/25(토)
부산예술회관
극단 누리에 <표본실의 청개구리>

B 11/23(목)~11/26(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몰 중앙광장
청년아트페어 <UNDER 39>

B 11/24(금)
사상인디스테이션
**사상인디스테이션 상설공연
<마이스테이지> 8회차**

11/26(일)
부산민속예술관
젊은소리쟁이 <맞이와 푸리>

B 11/30(목)
부산근현대역사관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 세미나

11/30(목)
금정문화회관
**부산네오피ل하모닉오케스트라
<제77회 정기연주회>**

12/1(금)
북구문화예술회관
극단 해풍 <길라몽키즈 공동기획공연>

12/7(목)~12/10(일)
북구문화예술회관
극단 해풍 <감성가족댄스극 포빅타운>

12/8(금)~12/10(일)
부산민주공원
극단 더블스테이지 <반가운 손님>

12/22(금)
영도문화예술회관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베토벤)>**

초단편 소설



외계인들

글. 임성용

소설가. 경북 김천 출생, 2018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등단, 2020년 현진건 문학상 추천작, 2021년 부산작가상 수상.
쓴 책으로 작품집 『기록자들』(2021, 걷는사람)이 있다.

야!

응?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같은 반 되고부터 쪽 봐왔잖아?

그... 령지.

자그마치 19년이야. 이만하면 절친이잖아?

그... 령다고 할 수 있지?

근데 말이야, 뭔가 이상해.

뭐가?

야나, 마시자. 짬?

그래... 짬.

크~ 근데 이 집 간풍기 좀 짜지지 않았냐?

음...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 뭐. 그건 그렇고. 오늘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나는 너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렇다고 너 닮는 건 아냐. 네가 미주알고주알 말해대는 놈도 아니고, 아마 그동안 내가 관심이 없었던 탓이겠지. 너도 알다시피 내가 좀 그렇잖아? 남 생각 잘 못하고.

그... 런가?

그래, 너도 별 관심 없을 수 있지만. 뭐 자잘한 우정이니 배려 같은, 뭐 그런 간지러운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 그 뭐랄까... 거슬러.

뭐... 가?

네가 말할 때 첫 글자 뒤에 ... 찍는 버릇 말이야.

이... 런거?

그래, 그거.

이게... 왜?

그렇게 오래 봐왔는데 말이지. 장장 19년이잖아. 근데, 나는 네가 언제부터 ... 을 애용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 처음으로 네가 사용하는 ... 을 감지한 게 언제인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왜 사용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게 뭔가 네 인생에서 중요한 ... 인 것 같다는 말이지. 잘 모르겠어. 분명한 건 처음 우리가 만났을 즈음에는 너는 ... 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지.

흠... 너 그냥 술 된 것 같은데?

아냐 임마! 두 병잔데, 이걸로 무슨 술이 돼.

아님 말고.

아, 말하다가 까먹었잖아.

처음에는 내가 ... 을 사용하지 않았어, 까지 했지.

그래 그거야. 그럼, 말 나온 김에 직구로 물어보자. 도대체 언제부터 ... 을 애용하게 됐어? 이유는 있고?

음...

또 보라. 지금도 쓰고 있잖아.

전문용어로 '말줄임표'라고 하지.

그래 그거, 언제부터 왜 썼냐고?

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내 인생의 중요한 기점에서 말줄임표가 나타났고,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맞아?

그렇춰, 아이고 철학과 아니랄까봐 논리적인 거 보라.

나 철학과 아닌데, 국문관데, 철학은 부전공인데, 임마!

그래 그래 국문과 철학부전공 써, 닥치고 '그것이 알고 싶다'나 말해보시지?

음...

또 보라.

흠... 이제 고백할 때가 온 것 같군.

뻥카치지 말고 제대로 말해.

놀라지 마?

알았다고!

그래... 사실, 나 외계인이야.

하, 말하기 싫음 됐어. 술이나 마셔.

진짠데?

진짜라고? 그럼 뭐, 타고 온 우주선이라도 보여 주등가. 뭐 증거를 대 봐.

흠... 일단, 짠?

그래, 짠! 이다 임마.

크~ 그리고 보니 간풍 양념이 좀 짠 것 같기도 하네.

거봐, 내 말이 맞지?

우주선은 없는데... 다른 증거는 있어.

뭐? 아직도 우긴다고?

인생 뭐 있냐? 설득당하거나 설득 하거나 둘 중 하나지.

카~ 역쉬 철학과.

야, 국문과라고.

그래그래. 알겠고, 일단 설득해봐라.

말줄임표, ... 네 말대로 거기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몰라.

역시, 거기군. 뭐가 있을 줄 알았어. 내 축이 장난이 아니거든. 내가 공무원 시험도 찍어서 된 사람이야. 30년 인생 축으로만 살아온 내공이 드디어 빛을 발하네. 어디, 시작해 봐라.

그래, 시작하자. 때는 대학교 3학년, 내가 호주로 워킹 가고 난 직후였어. 난 전역하고 복학해서 사랑과 존재론에 몰두해 있었지. 닥치는 대로 고백하고 차이는 생활을 반복하다가, 철학과 수업 들어가서 그 여자를 만났어.

그 여자? 내가 모르는?

응, 내가 모르는 여자 사람... 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외계인이더라고.

에이, 잘 나가다가 또 왜 이리시나?

...

알써 알써, 계속해봐.

한 번 더 끊으면 이야기 안 한다.

알았어, 알았다고 임마.

첫 존재론 수업에서 발표하는 그 여자를 보고 반했지. 두 번째 수업에서 인사하고 세 번째 수업 마치고 고백했어. 의외로 선선히 일단 만나 보자고 하더라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공부도 하고 매일 늦도록 통화를 했어. 좋았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개와 가장 좋았던 점은 그렇게 오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거야. 몸은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여기 이 공간에서 정신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듯한 느낌. 거기다가 '존재'라는 화두를 제대로 탐닉하고 있다는 학습자로서의 뿌듯함도 있었지.

오- 겁나 철학적이야.

야, 끊지 말라고.

아, 미안 미안.

짜식이, 간만에 집중하고 있는데...

엠편, 죄송합니다.

그날도 두 시간 정도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 시간이 새벽 한 시쯤 됐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다 떨어져서 졸리기 시작했어. 그때 개가 갑자기 물었어.

너는 어디에서 왔지?

갑자기?

응, 갑자기.

히, 거 참.

졸음이 훑 달아났어. 그리고 생각했지, 학습 모드로의 전환인가? 그래, 이런 게 필요하지. 우리는 존재를 탐구하다가 만난 사이니까. 이게 진정한 공부지. 두 존재가 새벽 한 시에 전파의 공간에서 만나 그 기원을 탐구하는 기쁨. 나는 좀 진지하게 그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어. 그래서 일어나 앉아 척추뼈를 세우고 대답했지. 글썸, 엄마 자궁? 아니, 그 이전에 미네랄? 그 이전에 캄브리아기. 그 이전에 햇빛, 열, 가스, 빅뱅. 그 이전은 상상되지 않는데... 그냥 난 빅뱅으로부터 왔다고 하지 뭐. 근데, 그렇게 묻는 너는 어디에서 왔지?

난 상황 자체가 즐거워서 장난기를 약간 섞어 되물었어. 근데 지나고 나서 안 사실이지만 되물으면 안 되는 거였어. 그녀가 갑자기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같은 공간에 있지만 대기권 밖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과 함께 물리적인 감각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 나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눈치챘지만, 이미 어쩔 수가 없었어. 그때, 그녀가 대답했어.

난 사실, 네 상상 너머에서 왔어. 꽤 멀었어. 너는 그 작은 머릿속에 더 작고 좁은 골목길만 수없이 만들어 놨더군. 그래서 너에게 오는 게 꽤 늦어졌어. 길을 자주 잃었거든. 어쨌든 결국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제 너는 이 미로 같은 너의 골목길을 빠져나가면 돼. 거기에 내가 온 우주가 있어. 아마 너에게는 구원이 될 거야. 아니면 일찍이 맞본 적 없는 절망이거나.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구원이든 절망이든 거기에서는 별 의미가 없거든. 금방 익숙해질 거야. 그저 너는 계속해서 떠날 준비만 하면 돼.



그리고는 그녀의 목소리가 투명해지기 시작했어. 전화기 너머로 물처럼 흘러가 대기권 밖으로 사라져버리는 목소리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계속 어, 어, 거리고만 있었어. 곧 그녀가 완전히 사라졌어. 그리고 좀 있다 뚜 뚜 뚜 ... 이렇게 점 세 개가 찍혔어.

하- 임마 이거 또 소설 쓰고 있네.

야, 아직 안 끝났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디 끝까지 해봐.

점 세 개, 그때부터 나는 말줄임표가 외계의 언어라는 걸 알게 됐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겐 외계인이라는 것도.

끝?

응.

누가 소설가 나부랭이 아니랄까봐. 아주 뽀타스틱하다.

이제 알겠지? 내가 첫 글자 다음에 ... 을 넣기 시작한 때는 바로 그때부터야. ... 은 말과 말 사이에 시간을 넣어 외계의 존재와 소통하는 방식인 거지.

아 뉘, 야, 그만하지?

한 가지 더 남았어.

또 뭐!

너도 곧 ... 을 쓰게 될 거야.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지. 너도 외계인이었다는 걸.

이런, ...

거봐, 바로 쓰네. 이제 너도 외계인이야.

아, 이 사기꾼 나부랭이.

흠...

또 뭐!

짠! 할까? 외계인?

아 뉘, 그래 짠! 이다, 짠!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 모집

여러분을 부산의 문화예술인으로 모십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

산소처럼 부산문화재단과 늘 함께하고 싶은 분!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화려함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재단과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하나 되어

단단한 후원을 쌓아가는 당신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인입니다.

후원혜택 1

세제 혜택(연말정산 등)
재단 기념품 증정
재단 발간도서 발송(공감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시민평가단 우선순위 배정

후원혜택 2

일반회원 매월 1만 원 정액 납부
연간회원 매년 20~50만 원 정액 납부
평생회원 500만 원 이상 일시불 납부
단체회원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

후원혜택 3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scf.or.kr > 열린광장 >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러 가기
문의전화 부산문화재단 재정관리팀 051-745-7253

등록

50호 정기간행물(부산남 바 00007)
ISSN 2586-1077

등록일

2011.6.23.

발행일

2023.9.25.

발행인

이미연

편집인

박소윤 김정

편집위원

오성은 박보은 박성관

표지 디자인

박보은

『공감 그리고』의 50호 표지 디자인은 핀란드 일간지 <헬싱인 사노마트(Helsingin Sanomat)>가 제작한 기후위기 서체(The Climate Crisis Font)를 활용했습니다.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디자인 및 제작

효민디앤피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E FOUNDATION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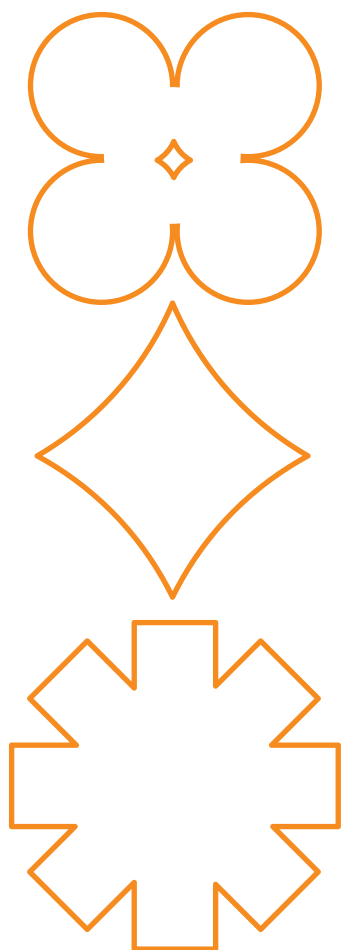
TEL. 051-744-7707

www.bscf.or.kr

부산문화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 『공감 그리고』는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 제공형 문화예술 잡지'입니다.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은 모두 개인 필자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공감 그리고』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국제 산림관리협의회(FSC)에서 인증한 종이와 미국대두협회(ASA)에서 인증한 친환경 공기를 잉크를 이용해 인쇄합니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9 772586 107008
ISSN 2586-1077